



선생님들의 선택, 교육을 묻다

알빈 밴스트라(Alvin Bandstra)

“선생님들의 선택”

일명 Mr.B라 불리는 알빈 밴스트라(Alvin Bandstra)를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 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 유경상 실행위원이 만났다.

☞ 인터뷰 유경상 (실행위원, CTC 대표), 통역 최제시카 (샘물학교 교사)

유경상 :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Mr. B : 제 이름은 Alvin Bandstra입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냥 Mr. B라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아이오와의 펠라기독교초등학교(Pella Christian School)에서 43년간 교직생활을 했고, 개혁주의 교단(Reformed Church)에서 1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교직생활을 시작하고 15년 동안은 기독교 교육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사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내가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매일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무엇인가 큰 것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부터 3년간 워싱턴주 시애틀 퍼시픽 대학(Seattle Pacific Univ.) 알버트 그린(Albert E. Greene) 박사로부터 기독교 교육에 대해 배우면서 저의 교직생활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모든 교육 과정을 새롭게 바꾸고, 수업들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미국의 역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에 전념했습니다.

2007년에 샘물학교 교사들이 제가 교장으로 섬기고 있던 펠라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그린 박사를 만난 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저의 교육과정과 가르침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샘물학교의 초대 를 받았고, 1년 뒤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샘물학교 의 제안을 받았을 무렵, 저는 펠라학교에서 은퇴 준비 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1년간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습니 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 니다. 지금은 샘물학교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과 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샘 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자 즐거움입니다.



유경상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독교 교육이란 어떤 것인지,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이란 무엇 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r. B :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 15년간 교사생활을 하면 서 써왔던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린 박사를 통해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육 활동에 하나님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 교육과정을 생각해 볼 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이건 개인 의 삶이건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 라함을 축복하시며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 는 뜻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곳에는 만드 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역시 역 사교육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에 대한 형들의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 및 수많은 사람들 을 살리는 대비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암울



기독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뼈와 근육을 가르치는 과학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단지 뼈와 근육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사로서 뼈와 근육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뼈와 근육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고 끄적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역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5단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concept) 수립입니다. 기독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뼈와 근육을 가르치는 과학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단지 뼈와 근육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사로서 뼈와 근육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뼈와 근육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독교 교육은 매우 강력한 것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사의 교육목표 설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은 교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과과정이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생의 학습목표 설정입니다. 교수법 이론에는 대개 아이들을 위한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에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습내용의 사실(fact)과 관련된 목표는 있으나, 의미(meaning)와 관련된 목표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키보드 자판에서 w키만 따로 분리해 놓고 '이것이 w키다.'라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세속적인 교육은 부분은 설명해도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사는 학습목표를 바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대한 사실뿐 아니라 의미와 목적까지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별도의 과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성경인지, 역사인지, 과학인지를 깨닫지 못해야 합니다. 모든 과목에 성경이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전략입니다. 특히 핵심적인 질문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수업이라면 '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까?', '왜 예수님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번영은 잘못된 것인가?' 등의 질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에 대해서라면 '사람이 뼈와 근육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죄가 우리의 뼈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뼈나 근육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부활할 때 뼈와 근육을 갖고 있을까?' 등의 질문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경상 : 언급하신 질문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구성요소인 창조, 타락, 구속의 틀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Mr. B :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이 별도의 과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성경인지, 역사인지, 과학인지를 깨닫지 못해야 합니다. 모든 과목에 성경이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런 박사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고 기독교 교육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은 제법 오랜 역사를 지니게 되었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할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하기 쉽지 않은 과목들도 있습니다. 읽기, 쓰기, 문법, 수학 등 기능 위주의 수업은 기독교 세계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간혹 '수학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



르칠 것인가?' 하고 묻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숫자를 사용하여 약속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하는 작업은 참 재미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을 교육하기 위해 이 수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평가입니다. 평가할 때는 앞서 했던 질문들을 재조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경상 :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교과목에 대한 책을 쓰신다면, 기독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r. B. : 현재 과학 관련 책을 준비하고 있고, 생물학교출판사에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과학이 마무리되면 역사 관련 책도 집필할 계획입니다.



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아닌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교회는 학교를 지원하되 결코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권한은 교회나 교사보다,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학교들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운영합니다. 교회는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목회자는 설교를 책임집니다.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것처럼 학교 역시 교회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부모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영어와 스페인어, 두 개의 과정으로 따로 운영하는 방안을 학부모들이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학교의 예산결정과 교사채용에도 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정책결정의 권한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가 학교를 지원하되 부모들이 중심 축이 되어 운영하는 학교

유경상 :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신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 교육의 근황을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Mr. B. : 열정적인 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즐거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사들 대부분은 참으로 헌신적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가치에 헌신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 교사들은 너무 많은 업무와 잦은 회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언제 휴식하고 재충전하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 학급운영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을 훈육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교사들



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유경상 :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준비된 부모들이 많아져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을 훈련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Mr. B. :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부모교육에 대한 부분은 미국 기독교 학교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부모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 교육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매주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샘플학교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유경상 :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Mr. B. : 저는 교사들과 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도록 도우려 하는데, 바라기는 학교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저는 앞으로 교사들을 학년별 소그룹으로 만나 개인적인 수업계획을 도우려 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20년 후의 세상을 만드는 일이고 너무나 강력한 사명입니다. 저는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사가 제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교사들이 저의 도움에 힘입어 교사생활을 즐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교사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 다음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